

四象醫學 形象觀에 대한 事心身物的 考察

金廷浩* · 宋正模**

A Sasang Theoretical¹⁾ Study about the Morph & Image(形象)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im Jeong-ho*, Song Jeong-mo**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 Suk University

Nowadays there are a lot of attempts and approaches in the Study of Oriental Medicine. The Morph&Image is one of them, and its importanc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Likewise,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Morph&Image is one of the important part too. And it is presented in the <Discourse on Identifying Four Constitution(四象人辨證論)> of <<Dor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²⁾. But that Discourse shows us only the concept and conclusion of Morph &Image, based on class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without explaining how it is derived. So the author studied the basic theory parts of <<Dorgyi Soose Bowon>> -those are the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性命論)>, <Discourse on Four Principles(四端論)>, <Discourse on Establishment and Supplement(擴充論)>, and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臟腑論)>- and wanted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Morph&Image concept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 Suk University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 Suk University

1) Sasang theory is 事心身物(Event, Mind, Body, Object) Constitution theory.

2) The original Text of Sasang Constitution.

1. Every portion of human body, can be considered as Morph&Image, in <<Dorgyi Soose Bowon>> could be explained in the line with the Sasang theory. Morph&Image in <<Dorgyi Soose Bowon>> contents not only the shape itself but also image, operation, mind condition, nature, emotion and so on.
2.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has the Morph&Image categorized by Five elements(五行). And it is used for Oriental medical Diagnosis. But in the Sasang Constitution, Morph&Image is used for Sasang Constitutional classification.
3. The Morph&Image in Sasang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ffairs(事)- group(ears, eyes, nose, mouth(耳目鼻口) and so on), object(物)-group(lung, spleen, liver, kidney(肺脾肝腎)and so on), Mind(心)-group(jaw, chest, navel, abdomen(頤臆臍腹) and so on) and Body(身)-group(head, shoulders, waist, hips(頭肩腰臀) and so on) are those.
Event and Object groups reflect the congenital conditions of Sasang-Classified human body, and Mind and Body groups reflect mind state, nature, emotion, etc..

Key word : Morph&Image(形象).

초 록

研究目的

: 韓醫學의 最近의 研究 傾向에 있어서 많은 시도와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중 形象醫學이라는 분야는 기존 韓醫學의 傳統的 理論을 근거로 하고 다양한 임상적 지식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醫學的 診斷과 治療, 豫後 그리고 豫防의 次元에서 유용하게 應用되고 있다. 이러한 形象醫學은 다양한 연구와 임상적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韓醫學 理論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醫學的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도 이와 같은 形象醫學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四象體質辨證이라는 四象醫學의 주요 과제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四象醫學에서의 形象的인 개념이 비교적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辨證論>이라 할 수 있는데 <辨證論>에는 太小陰陽人의 네 가지 體質에 따른 體形氣象과 容貌詞氣 등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원리적인 설명은 <辨證論>에는 생략되어 있다. 四象醫學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정신은 四象精神 즉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의 要約精神이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形象에 관한 부분도 기본적인 理論이나 精神에 입각한 研究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著者는 四象醫學의 原理論이라 할 수 있는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考察을 시도하여 이제마의 形象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事心身物의 精神에 입각하여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研究方法

: 먼저 四象의 개념에 대한 起源을 살펴보고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 나타난 形象과 관련 있는 대상을 정리하였으며 考察을 통해 그들이 가지는 事心身物이라는 四象精神에 입각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形象의 대상들을 四象構造로 분류하여 四象醫學의 形象的 대상들을 四象精神 속에서 전체적으로 理解하고자 하였다. 追加的으로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과 四象의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을 比較함으로써 四象醫學 形象觀의 特徵을 〈辨證論〉을 비롯한 既存의 研究 資料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研究結果

形象的 대상으로서 제시된 각 부위는 모두 事心身物的 精神 속에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들 形象은 五行的 觀點의 形象과 달리 機能的 측면이 중시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形象의 모습만이 아닌 수행하는 기능이나, 그 形象을 통해 드러나는 心慾을 관찰하는 대상으로서의 形象이 중시됨을 의미한다.

內經醫學 즉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은 五臟配屬이 기본이 되어 있으며, 形象의 관찰을 통해 臟腑의 虛實이나 病의 상태를 알아내는 診斷的 성격의 形象인 반면 이제마의 四象醫學에서의 形象은 臟腑의 大小, 性情, 心慾 등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서 四象體質辨證의 성격을 갖고 있는 形象이다.

四象醫學에서의 形象들을 다시 群으로 묶어 事的인 形象群(耳目鼻口 등), 物的인 形象群(肺脾肝腎 등), 心的인 形象群(頤臆臍腹), 身的인 形象群(頭肩腰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事物的인 形象은 耳目鼻口와 肺脾肝腎 등 天稟的으로 타고난 편차를 드러내는 靜的인 形象이라 할 수 있고 心身的인 形象은 頤臆臍腹과 頭肩腰臀 등 心慾을 반영하는 動的인 形象이라 할 수 있다. 〈辨證論〉에 제시되고 있는 體形氣象, 性質材幹, 容貌詞氣 등은 事物的인 形象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 이외에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原理論的인 과정에서 제시된 心慾을 관찰하는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형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中心單語 : 形象, 形象的 對象, 事心身物, 形象群.

I. 緒 論

形象이라는 概念은 韓醫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概念이다. 韓醫學에서는 形象을 觀察하여 人體의 生理 상태나 病理 상태를 파악하며 疾病의 性質이나 人體의 虛實을 알아내기도 한다. 현대 韓醫學에 있어 人體 形象에 대한 醫學적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인체에

非侵襲的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臨床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일 것이다.

四象醫學에서도 역시 形象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四象醫學에서의 形象的인 개념이 비교적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辨證論〉이라 할 수 있는데 〈辨證論〉에는 太小陰陽人의 네가지 體質에 따른 體形氣象과 容貌詞氣 등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

나 보다 원리적인 설명, 다시 말해 그 형상이 四象精神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는 <辨證論>에는 생략되어 있다.

四象醫學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정신은 四象精神 즉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的 要約精神이다. 四象醫學의 이론과 임상은 모두 이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形象에 대한 관점도 이러한 四象精神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四象體質 辨證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어느 한가지의 방법에만 전적으로 依存하거나 學問的인 뒷받침이 결여된다면 그 本來의 醫學的 精神은 退色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診斷의 客觀化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學問的 근거의 延長線에서의 研究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形象에 관한 부분도 기본적인 理論이나 精神에 입각한 研究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著者는 四象醫學의 原理論이라 할 수 있는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考察을 시도하여 이제마의 形象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事心身物의 精神에 입각하여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四象 概念의 출발과 그 精神

1) 四象 概念의 도출에 관한 학설

四象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출발을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여기엔 두가지의 대표적인 四象 概念의 설명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 五行의 現實的 適用說.¹⁾

四象은 五行의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を 肝金, 脾火, 心土, 肺水라고 바꾼 것으로 본다. 이것은 관념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표1)

<표 1>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	肝金 脾火 心土 肺水
----------------------------	----------------------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事物의 본질적인 流動은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형상에서 본질적인 개념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둘째 五行 법칙의 목적을 밝히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木은 어떠한 목적 때문에 發하며, 火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散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우주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우주의 현실적 신비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古來의 본질적 법칙을 현실적인 현상과 交通시키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

(나) 周易의 太極 起源說²⁾

이것은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理論이며 格致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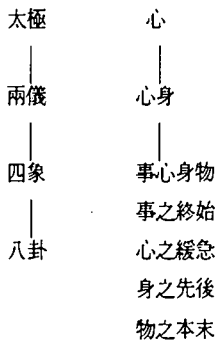
1)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 1996. pp.75-84.

2) 이제마 格致藥. 韓國弘方, 1940년. pp.113-115.

를 통해 학문적인 根據를 확보하고 있는 이론이다.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표 2>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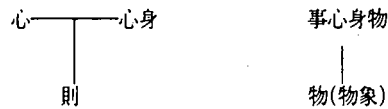
周易에서는 太極-兩儀-四象-八卦의 변화과정을 거쳐 物象으로서의 卦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나 四象醫學에서는 事心身物이 바로 事物의 본질이며 그 構成 單位가 된다. 따라서 八卦는 四象의 兩面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2) 周易의 太極 起源說과 四象精神.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四象의 의미는 四物類的 要

約精神에서 나온 네가지의 物象을 의미하는 것으로 '物'과 '則'의 對比되는 개념으로 사상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太極과 兩義는 '則'에 해당되고, 四象은 '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實體의 개념의 物象으로서 모든 事物의 구성의 本體的인 單位構造로 인식된다.⁴⁾

<표 3>



<格致藁>

이는 <中庸>을 비롯한 儒學의 정신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本體論的 四象構造의 裏面에는 '則'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哲學의 입장에서 '氣 裏形表'의 精神으로 나타나 '形'과 '氣'의 力動的 相關關係가 存在하게 된다.⁵⁾

<표 4>

氣裏(則)	形表(物)
太極(心)	兩義(心身)
	四象(事心身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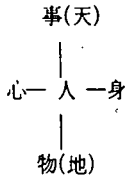
그리고 전체적으로 人을 중심으로 上下에 天과 地가, 左右에 心과 身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형성되는데 이는 人을 구성하고 있는 本體로서의 事心身物의 개념이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관한 考察, 경희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1.

4) 宋一炳 외, 四象醫學, 集文堂, 1998, pp.59-62.

5) 上揭書, pp73-74

〈표 5〉



이러한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本體論을 정립함으로써 四物類形的 속성을 이용하여 모든 事物과 現象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四象醫學에서는 四物類的 要約精神속에서 인간을 인식하고 연구하게 된다.

2.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各論에 나타난 形象的 대상에 대한 四象 精神

1) 性命論

(가) 性命論의 개요

이제마는 性命論에서 性과 命을 통해 규정되어지는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人間을 중심적 존재로 하여 對外的 대상인 天機와 人事, 그리고 對內的 대상인 性과 命 그리고 이들 각각을 실천하는 慧覺과 資業의 제시가 性命論의 주된 구조이다.⁶⁾ 性命論속에서의 人間은 四象의으로 규정된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다.

好善惡惡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 그리고 知行을 실천하는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이 각각 天人性命에 대응하는 구조를 이룬다.

1) 天機와 人事

天機에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으로, 人事는 事

務, 交遇, 黨與, 居處로 구분 짓고 있는데 天機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환경요소를 나타내며 人事란 인간생활 속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이들의 분류구조 역시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精神에 입각해 있다.

2) 性命과 知行

知와 行은 인간이 先天的으로 부여받은 능력인 동시에 後天的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서 天機를 통해 人事를 표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知에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 있고 行에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 있는데 이러한 知와 行은 心身の 개념으로 확대되며 性命을 實踐하는 개념으로 延長된다.

보다 큰 시각에서 볼 때도 天機와 人事는 事物의 關係로, 性(知)와 命(行)은 心과 身の 관계로 규정지어 볼 수 있고 耳目鼻口를 事로 肺脾肝腎은 物로 頤臆臍腹은 心으로 頭肩腰臀은 身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상호 대응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나) 性命論에 나타난 形象的 대상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1-3)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1-5)
頤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1-7)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1-9)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1-19)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1-21)
耳目鼻口	人皆知也	頤臆臍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1-28)

6) 四象醫學, 上揭書, pp.62-64

〈표 6〉 性命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耳聽天時	肺達事務	頷有籌策 驕心	頭有識見 擅心	事
目視世會	脾合交遇	聽有經綸 矜心	肩有威儀 侈心	心
鼻嗅人倫	肝立黨與	臍有行檢 伐心	腰有材幹 懈心	身
口味地方	腎定居處	腹有度量 夸心	臀有方略 慾心	物
事	物	心	身	

性命論에는 形象的 대상으로서 耳目鼻口, 肺脾肝腎, 頷臆臍腹, 頭肩腰臀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각각에는 그 기능과 특징, 내재하는 성격들이 주어졌는데 이들 역시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의인 要約精神에 따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들 形象的 대상들의 外形의 모습의 묘사가 아닌 주로 드러나는 성격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의 形象을 본다는 행위는 耳의 聽天時하는 기능을 살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事物의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비교적 天稟的이고 固定的인 形象이라면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은 心身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知行을 실천하며 後天的이고 動的인 形象으로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갖고 있는 形象이라 볼 수 있다.

2) 四端論

(가) 四端論의 개요.

이제마는 四端論에서 人間을 精神의인 心과 肉體의인 肺脾肝腎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를 人稟臟理의 大小와 人趨心慾의 차이로 구분하여 네 體質분류하였다. 즉 四象醫學의으로 규정되는 차별적인 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人稟臟理에 따라 肺大肝小者를 太陽人(事)이라 하고, 肝大肺小者를 太陰人(身)이라 하고, 脾大腎小者를 少陽人(心), 腎大脾小者를 少陰人(物)이라 하였다. 또한 人趨心慾에 따라 鄙人(事), 薄人(心), 貪人(身), 懦人(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四象人의 臟腑大小의 결정 과정으로 性情의 作用을 제시하고 있는데 性是 哀怒喜樂으로서 耳目鼻口가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天性이며 情으로서의 哀怒喜樂은 促急한 성질을 가져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할 때 드러나는 表現의 感情을 말한다. 이러한 性情의 구조도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精神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人趨心慾과 人稟臟理에 의해 心身을 이루고 있는 四象體質의 인간이 정의된다.

(나) 四端論에 나타난 形象的 대상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2-14)

頻起怒而 頻伏怒則 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 迫蕩不定則 肝 其不傷乎

乍發喜而 乍受喜則 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 闊狹不定則 脾 其不傷乎

忽動哀而 忽止哀則 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則 腎 其不傷乎

屢得樂而 屢失樂則 背顛 暴揚而暴抑也 背顛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顛 抑揚不定則 肺 其不傷乎(2-17)

〈표 7〉 四端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표 7-1

下焦: 哀氣, 怒氣 - 上升-下焦가 傷
 上焦: 喜氣, 樂氣 - 下降-上焦가 傷

표 7-2

腰脇：頻怒 頻伏怒 - 腰脇 迫薄不定, 肝傷 太陽人 事
胸腋：乍發喜 乍受喜 - 胸腋 闊狹不定, 脾傷 少陰人 身
脊曲：忽動哀 忽止哀 - 脊曲 屈伸不定, 腎傷 少陽人 心
背佳貞：得樂而 屢失樂 - 背佳貞 抑揚不定, 肺傷 太陰人 物

四端論에서의 形象的 대상은 性情과 그로 인한 氣의 성질에 따른 上焦와 下焦의 盛衰 그리고 腰, 胸, 脊, 背의 운동성의 편차를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哀怒喜樂의 체질적 편차로 인한 上焦와 下焦의 形象을 볼 때 陽人은 哀怒之氣의 上昇으로 인해 下焦가 빈약하고 陰人은 喜樂之氣의 下降으로 인해 上焦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腰脇, 胸腋, 脊曲, 背佳貞도 각기 體質別 臟腑大小와 관련지어 분류가 가능하다.

四端論에서의 形象的 대상으로 제시된 上下焦와 腰脇, 胸腋, 脊曲, 背佳貞은 性情의 편차와 그 氣의 上昇 下降과 관련지어 그 形象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形象들은 체질별 性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擴充論

(가) 擴充論의 개요

四端論에서 제시된 四象人의 性情과 臟腑大小의 관계는 擴充論에서 구체화된 모습을 갖춘다. 즉 性情을 氣의 개념으로 살피어 哀怒喜樂之氣의 順動은 性으로서, 逆動은 情으로 作用하여 臟局의 형성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性情과 人事를 관련지음으로써 性情과 天機 및 人事가 서로 事心身物적 관련을 이루게 되며 이것이 나아가 체질적 특성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한다.

(나) 擴充論에 나타난 形象的 대상.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3-2)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3-3)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故 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小也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故 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故 太陰之腎 不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小也

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故 少陽之氣 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小也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大也

少陰之視 不能廣博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小也(3-4)

擴充論에서 이제마는 耳目鼻口의 聽視嗅味の 편차로 인한 神氣血精의 증축여부에 따른 肺脾肝腎의 大小와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盛衰를 제시하고 있다.

耳目鼻口의 聽視嗅味の 기능과 神氣血精, 頭腦, 腰脊, 背脊, 膀胱, 肺脾肝腎이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예를 들어 太陽人은 能廣博天時 不能廣博人倫 이므로 耳大鼻小의 개념까지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耳大鼻小은 能聽 不能嗅의 의미를 위주로 하고 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耳目鼻口로부터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形象을 관련짓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 兩者의 形象이 事心身物的 四物類的 要約精神으로 볼 때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臟腑論

(가) 臟腑論의 개요.

臟腑論에서는 水穀의 代謝過程과 四氣의 作用을 통해 四象醫學의 生理觀이 정립된다. 四象의 精神에 의해 설정된 肺脾肝腎이라는 四臟과 胃脘, 胃, 小腸 大腸의 四腑, 그리고 四焦가 四氣의 作用에 의해 대사를 진행하며 이 들과 前後四海, 皮筋肉骨, 耳目鼻口 등 四黨의 기능이 연결된다.

四象醫學의 生理過程은 먼저 津膏油液을 생성하여 津膏油液海의 前四海를 이루고 後에 神氣血精을 생성하여 臟膜血精海의 後四海를 이루게 된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作用은 前後四海 物質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耳目鼻口가 深遠廣大하면 精神氣血이 生하고 淺近狹小하면 精神氣血이 消耗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肺脾肝腎이 正直中和하면 津膏油液이 充足해지고 偏倚過不及하면 津膏油液이 消耗된다. 이들 四黨과 四氣 및 水穀代謝 등의 과정 각각은 事心身物的 四象精神을 인체의 生理構造에 적용시킴으로써 前後循環 및 四黨內의 循環으로 臟腑機能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 臟腑論에 나타난 形象的 대상

肺部位 在頤下背上 胃脘部位 在頤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膈 胃部位 在膈故 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故 脊臍下以下 謂之下焦(4-1)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 爲賦海 賦海者 神之所舍也

賦海之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故 胃脘與 舌 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4-4)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脰間兩乳 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 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 外歸于筋故 胃與 兩乳 目 背脊 筋 皆脾之黨也(4-5)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 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 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 外歸于肉故 小腸與 臍 鼻 腰脊 肉 皆肝之黨也(4-6)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 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 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 外歸于骨故 大腸與 前陰 口 膀胱 骨 皆腎之黨也(4-7)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 爲神而

注之頭腦 爲賦 積累爲賦海

目 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中上焦 爲氣而

注之背脊 爲膜 橫累爲膜海

鼻 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

爲血而

注之腰脊 爲凝血 積累爲血海

口 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 爲精而

注之膀胱 爲凝精 積累爲精海(4-8)

肺 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賦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

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 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

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 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而

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 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而

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4-9)

賦海之濁滓則 頭 以直伸之力 鍛鍊之而 成皮毛

膜海之濁滓則 手 以能收之力 鍛鍊之而 成筋

血海之濁滓則 腰 以寬放之力 鍛鍊之而 成肉

精海之濁滓則 足 以屈強之力 鍛鍊之而 成骨(4-11)

頭腦之賦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4-15)

舌 之津海 耳之根本也

乳 之膏海 目之根本也

臍 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4-16)

心 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4-17)

臟腑論에서의 形象的 대상은 먼저 四焦의 부위를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四臟과 四腑의 위치에 의해서 四焦의 부위가 정의된다. 그리고 水穀代謝의 과정을 통해 四黨이 형성되고 이후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形象的 대상들이 서로 관련을 이루게 된다. 이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臟腑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1

上焦	頤	頭	舌	頭腦	耳	皮毛	事
中上焦	臆	肩	乳	背脊	目	筋	心
中下焦	臍	腰	臍	腰脊	鼻	肉	身
下焦	腹	臀	小腸,前陰	膀胱	口	骨	物

그리고 四官(耳目鼻口)이 天機를 통해 後四海를 이루는 과정에서 四官과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관련성이 다시 언급된다. 이것은 〈擴充論〉에서의 考察과 그 脈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은 四官의 機能 偏差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 兩者는 四象의인 면에서 볼 때 같은 위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표10)

〈표 9〉 臟腑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2

耳	天時之聽力	津->神->頭腦(頭)->賦海	事
目	世會之視力	膏->氣->背脊(肩)->膜海	心
鼻	人倫之嗅力	油->血->腰脊(腰)->血海	身
口	地方之味力	液->精->膀胱(臀)->精海	物

四行(頭手腰足)의 力으로 皮筋肉骨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것 역시 사상의 구조 아래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頭手腰足を 頭肩腰臀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皮筋肉骨은 頭肩腰臀의 形象과 연결되는 또 다른 形象이라 볼 수 있다.

〈丑 10〉 臟腑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3

濁宰 臑海 -頭 直伸之力->皮毛	事
臑海 -手 能收之力->筋	心
血海 -腰 寬放之力->肉	身
精海 -足 屈強之力->骨	物

〈臟腑論〉의 末尾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心의 주재 아래 四官과 四臟, 四知, 四行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丑 11〉 臟腑論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4

心(主宰) -- 神- 四官 : 耳目鼻口 察	事
四臟 : 肺脾肝腎 付	物
四知 : 頤臆臍腹 誠	心
四行 : 頭肩腰臀 敬	身

이는 〈性命論〉에 제시되었던 기본적인 形象的 대상들의 四象의 위치가 다시금 臟腑論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根據로 四象醫學의 形象的 대상들이 四象의인 精神 아래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具體化시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形象的 대상들을 事心身物의 관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四官의 形象은 聽視嗅味の 기능과 함께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形象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事心身物의 事에 해당하는 形象으로 분류할 수 있다. 四臟은 기본적으로 體表에서 볼 수는 없지만 臟局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중요한 形象의 하나가 되며 臟腑大小라는 四象醫學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象이라 볼 수 있으므로 形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四臟의 形象은 腰脇, 胸腋, 脊曲, 背椎의 形象과 함께 物적인 분류를 이룬다. 여기서 腰脇, 胸腋, 脊曲, 背椎의 形象은 運動성의 편차를 위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臟腑

〈丑 12〉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形象的 대상의 四象 類型化

四官	事 耳聽 天時 頭腦 心 目視 世會 背脊 身 鼻嗅 人倫 腰脊 物 口味 地方 膀胱	事 (天)	事物的 形象群 -> 體形氣象 容貌詞氣 性氣, 情氣
四臟	事 肺 達 事務 哀力 腰脇 迫瀟不定 心 脾 合 交友 怒力 胸腋 闊狹不定 身 肝 立 黨與 喜力 脊曲 屈伸不定 物 腎 定 居處 樂力 背佳頁 抑揚不定	物 (人)	
四知	事 頤 籌策 驕心 心 臆 經綸 矜心 身 躋 行檢 伐心 物 腹 度量 夸心	心 (性)	心身的(知行的) 形象群 ->
四行	事 頭 識見 擅心 心 肩 威儀 侈心 身 腰 材幹 懶心 物 臀 方略 慾心	身 (命)	心慾

의 大小를 반영할 수 있음이 四端論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臨牀的으로 研究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은 각각 知와 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心身的인 形象으로 분류할 수 있다.

〈性命論〉에서 〈臟腑論〉을 통해 주로 언급되는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주요 形象的 대상들은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的 要約精神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 그리고 이들과의 관련하여 특정지워지는 形象들은 事物的 形象群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보다 天稟的, 固定的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事物的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은 각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또한 드러내는 形象들로서 비교적 後天的, 流動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心身的 내지는 知行的인 形象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事物的 形象群은 〈辨證論〉에서 제시되

는 體形氣象, 容貌詞氣 그리고 四象人이 갖는 性氣와 情氣에 연결된다 할 수 있는데 體形氣象과 容貌詞氣 그리고 性氣와 情氣의 근거가 바로 肺脾肝腎의 人稟臟理와 耳目鼻口가 天機와 人事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心身의 形象群은 〈性命論〉과 〈四端論〉 등의 原理論에서 제시하는 人趨心慾의 측면과 연결되는데 그 근거는 그들 形象이 心慾을 드러내는 形象들로서 설명되어 있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事心身物의 意義.

四象醫學의 철학적 정신은 性理學의 세계관과 인간 자체를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여 얻은 이제마 자신의 독창적 人間觀, 그리고 그것을 實證的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儒略〉을 통해 이제마는 四象의 構造와 그 關係를 규정함으로써 인간 역시 그러한 四象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醫學의 次元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⁷⁾

다시 말해 이러한 四象醫學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은 四象精神 즉 事心身物의 要約精神으로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자연을 파악해 내는 사고이다. 이러한 四象精神은 四象醫學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일관하고 있는 理論이자 實踐精神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의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그 정신을 먼저 고려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四象醫學이 인정받고 있는 醫學的 實用性이 다시금 事心身物이라는 四象精神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4.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과 四象의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觀의 比較

四象醫學의 形象觀을 이해하는데 있어 既存醫學의 形象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五行的 形象觀과 四象의 形象觀 모두 현재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五行的 形象觀은 韓方 生理學과 診斷學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四象의 形象觀은 현재 四象醫學 形象觀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는 〈辨證論〉의 體形氣象, 性質材幹, 容貌詞氣를 위주로 하였다.

1)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

〈표 14〉

五行	五臟	六腑	五官	五體	五色	五華
木	肝	膽	目	筋	青	爪甲
火	心	小腸	舌	脈	赤	面
土	脾	胃	口	肌	黃	口唇
金	肺	大腸	鼻	皮毛	白	皮毛
水	腎	膀胱	耳	骨	黑	頭髮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은 기본적으로 위의 표와 같은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適用된다. 全身의 각 부위에 대한 形象論의인 理論의 출발이 되는 셈이다. 더욱 자세히 들어가 面部나 四肢, 體幹의 形象도 五行에 입각한 五色과, 五臟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面部 전체를 보면 이마는 心에, 左頰은 肝에, 右頰은 肺에, 鼻는 脾에, 턱은 腎에 분류하여 각 부위의 形象과 五臟의 기능과의 관계를 살

7) 四象醫學, 上揭書, pp.36-39.

2) 四象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

四象醫學에서 人體의 形象을 論하는 根據는 <辨證論>에 입각한 性情의 氣의 上下昇降의 偏差에 의한 臟腑大小를 根幹으로 하는 體形氣象論이다.

太陽人 體形氣象 腦佳頁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象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象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佳頁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象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18-2)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18-3)

太陽人 體形 元不難辨而 人數 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 腦佳頁之起勢 強旺 性質 疏通 又有果斷 (18-4)

太陽女 體形 壯實而 肝小脇窄 子宮不足 故 不能生產(18-6)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18-7)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18-8)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18-9)

太陰人 體形 長大而 亦或有六尺矮短者(18-10)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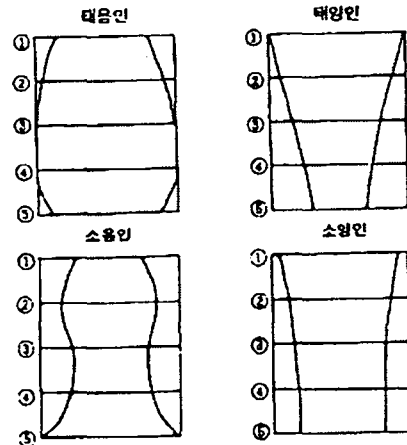
少陰人 體形 矮短而 亦多有長者 或有八九尺長大

者(18-10)

이러한 體形氣象을 圖式化하는 尺度法이 있는데 이는 四端論과 擴充論의 理論을 중심으로

體質마다 人體의 發達한 部위나 虛弱한 部위가 차이가 있음을 이용한 것이다.¹¹⁾

1. 제 1 선(어깨부위) : 좌우 양쪽 액와부에 있는 대흉근 외측 상단을 연결한 수평길이.
2. 제 2 선(가슴부위) : 양 젖꼭지를 지나는 겨드랑이에 이르는 수평길이.
3. 제 3 선(위부위) : 좌우 불용혈을 지나 양쪽 겨드랑이에 이르는 수평길이.
4. 제 4 선(배꼽부위) : 좌우 천추혈을 지나 양쪽 옆구리에 이르는 수평길이.
5. 제 5 선(장골부위) : 좌우 장골 양끝을 잇는 수평길이.



<fig.4>尺度法의 圖式化¹²⁾

11) 四象醫學, 上揭書, pp135-136.

12) 文成煥, 宋一炳, 四象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과 證治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의 比較 考察, 사상학회지 Vol.7. No.1. 1995, p.34.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陽人은 胸廓部位가 크고, 陰人은 골반 부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한편 갈비뼈가 척추에 붙는 각도를 가지고도 체형을 알 수 있다. 갈비뼈와 척추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면 太陰人 혹은 少陽人, 예각이면 少陰人으로 본다.¹⁴⁾

太陽人은 보통 이마가 넓고 관골이 나왔고, 少陽人은 머리가 앞뒤로 돌출하였다 하였고, 太陰人은耳目鼻口가 크다고 하였고, 少陰人은 少陽人의 반사형에 비하여 少陰人은 흡수형이라고 하였다.¹⁵⁾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은 五行의 체계 속에 形象的 대상들이 자기 분류되어 있으며 五臟配屬에 歸結해 있다. 따라서 각각의 人體 形象은 臟腑의 虛實이나 疾病의 상태를 파악하는 診斷的 성격의 形象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四象醫學의 形象觀은 四象體質 즉 太小陰陽人에 따라 자기 특징적 形象들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臟腑의 虛實보다는 臟腑의 大小를 나타내며 形象 自體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形象을 통해 드러나는 性情이나 性格 特徵을 함께 관련짓고 있다. 따라서 形象을 통해서 臟腑의 특징과 心的 특징을 함께 살필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四象體質辨證의 性格을 갖는 形象觀이라 할 수 있다.

III. 結 論

四象醫學의 核心 精神인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的 要約精神을 통해 이제마의 형상관을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辨證論〉에 걸쳐 살펴보

았다. 이상의 考察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제마가 바라보는 形象은 五行的 觀點의 形象과 달리 機能的 측면이 중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形象의 모습만이 아닌 수행하는 기능이나, 그 形象을 통해 드러나는 心慾을 관찰하는 대상으로서의 形象이 중시됨을 의미한다.
2. 形象的 대상으로서 제시된 각 부위는 모두 事心身物의 精神 속에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3. 內經醫學 즉 五行的 觀點에서의 人體 形象은 五臟配屬이 기본이 되어 있으며, 形象의 관찰을 통해 臟腑의 虛實이나 病의 상태를 알아내는 診斷的 성격의 形象인 반면, 이제마의 四象醫學에서의 形象은 臟腑의 大小, 性情, 心慾 등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서 四象體質辨證의 性格을 갖고 있는 形象이다.
4. 四象醫學에서의 形象들을 다시 群으로 묶어 事的인 形象群(耳目鼻口 등), 物的인 形象群(肺脾肝腎 등), 心的인 形象群(頷臆臍腹), 身的인 形象群(頭肩腰腎)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事物的인 形象은 耳目鼻口와 肺脾肝腎 등 天稟的으로 타고난 편차를 드러내는 靜的인 形象이라 할 수 있고 心身的인 形象은 頷臆臍腹과 頭肩腰腎 등 心慾을 반영하는 動的인 形象이라 할 수 있다.

13). 上揭書, p34.

14) 상계서, p.34.

15) 홍순용 외, 四象醫學原論, 壽文社, 1984, 附錄

5. <辨證論>에 제시되고 있는 體形氣象, 性質材幹, 容貌詞氣 등은 事物的인 形象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 이외에 <性命論>에서 <臟腑論>까지의 原理論的인 과정에서 제시된 心慾을 관찰하는 頤臆臍腹과 頭肩腰臂의 형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參 考 文 獻

- 이제마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1994
이제마 格致藥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전주 1998
이제마 格致藥 韓國弘方 서울 1940
- 宋一炳 외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1998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관한 考察 경희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서울 1991
文成煥 외 四象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과 證治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의 比較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7. No.1. 1995
홍순용 외 四象醫學原論 壽文社 서울 1984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하나미디어 서울 1991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 서울 1996
왕지선 외/정동주 외 역 醫學基礎理論問答 大成文化社 서울 1994
李鳳教 韓方診斷學 成輔社 서울 1997